

# 미아 리리

MIRAL Welfare Foundation  
2017년 여름호  
Vol. 58

1. 겸손 Modesty
2. 정직 Integrity
3. 존중 Respect
4. 옹호 Advocacy
5. 사랑 Love

MIRAL



# MIRAL



표지 사진\_중립어린이집 어린이들의 현장학습 모습

MIRAL Welfare Foundation  
2017년 여름호  
Vol. 58

밀알복지재단 소식지는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통해 사회참여와 자립을 돕는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 리더리(서울시 우수사회적기업)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1993년에 설립되어 국내 및 해외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옹호하고, 주체적인 삶을 지원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UN 경제사회이사회'로부터 특별 협의적 지위(Special consultative status)를 부여받은 국제 NGO로서 종교, 인종, 정치적 이념을 초월하여 도움이 필요한 모든 이들을 위해 활동합니다.

제호 밀알·Miral (통권 58호)  
발행처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발행 및 편집인 정형석  
기획과 편집 미디어홍보부

주소 [우] 06349 서울시 강남구 밤고개로 1길 34(수서동)  
TEL 대표번호 02-3411-4664  
회원전용 1600-0966  
FAX 02-3411-4779  
디자인·인쇄 리더리

www.miral.org  
miral@miral.org  
facebook.com/miral4664  
miralorg.blog.me  
@miral1993  
@miralwelfarefoundation

## 섬기는 사람들

- 【이사장】 홍정길
- 【상임대표】 정형석
- 【이사】 김명희, 김종인, 김주영, 박상범, 손봉호, 정진모, 정형석
- 【명예이사】 노상현, 박완철, 정형욱, 정현만, 조병성, 윤경희
- 【감사】 김재훈, 신명철, 임수택
- 【특수교육위원회】 위원장 박완철 위원 구자영, 이유진, 나영일, 정태중, 정형석, 최병우
- 【굿윌위원회】 위원장 신명철 위원 김명환, 박정열, 손만석, 이민철, 정형석
-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종인 위원 김귀자, 류제룡, 박상호 이정우, 정형석
-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김명희 위원 류미희, 박소영, 신민선, 이은주, 임종학, 정형석
-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위원장 정현만 위원 김혜경, 윤지준, 이기민, 전명희, 정형석, 한정국
- 【음악위원회】 위원장 윤경희 위원 박인옥 임종호 윤성원 이민자 노인경 나영일 양고운
- 【윤리위원회】 위원장 신명철 위원 박상범, 서경석, 정현만, 정형석
- 【전문위원】 김두현, 김의동, 김형식, 이천화, 전승만
- 【자문위원】 김준수, 배윤규, 이성현, 조윤경, 홍정혜

# CONTENTS



04	가치있는 역사
	나눔의 순환을 꿈꿉니다
05	한 알의 밀알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입니다
06	한 컷의 밀알
	꽃은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부터
08	우리들 이야기
	소리로 전파하는 나눔문화
12	현장이야기_①
	밀알콘서트 현장 속으로
14	함께 만든 변화
	서진이에게 시작된 희망찬 변화
16	함께 만들 희망
	우리의 작은 손을 잡아주세요
18	현장이야기_②
	날개, 다시 꾸는 꿈
22	현장이야기_③
	마다가스카르 오지 이동진료 동행 취재기
26	Give 스타
	나눔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 채명병 회원
30	현장이야기_④
	밀알학교 20주년 이야기
34	현장이야기_⑤
	'빛'나는 청춘 - 홍익대학교 광고 소모임 ADLIP
38	현장이야기_⑥
	희망이 있다면 외롭지 않다
41	회원안내
	에너지 나눔 대축제
42	활동 보고
	함께 만드는 따뜻한 세상
45	현장 소식
	법인사무처, 국내외 지부 및 산하시설 주요 소식
50	2017년 2분기 결산보고
	여러분의 후원금,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장애 분야에서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오랫동안 고민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우리를 가장 필요로 하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가치를 세상에 전달하기 위해, 소외된 사람이 없는 세상을 위해 밀알복지재단은 어제와 오늘, 오늘과 내일로의 나눔의 순환을 꿈꿉니다.



# 장애인에게 일자리는 최고의 복지입니다

밀알 가족들의 건강과 평안을 기원합니다.

긴 가뭄을 해결해 주었던 장마도 잦아들고,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만물이 무럭무럭 성장하는 푸르른 여름은 휴가와 휴양의 계절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30도를 넘나드는 뜨거운 날씨에도 냉방 기구조차 없이 땀을 흘려야 하는 고된 계절이기도 합니다. 밀알은 후원자 여러분들의 소중한 마음들을 모아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3일,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는 '제14회 밀알콘서트'가 개최되었습니다. "함께 하면 통합입니다."는 슬로건을 가지고 2004년에 시작된 '밀알콘서트'는 어느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장애인통합음악회라는 명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올해 콘서트는 특별히 공동주관인 세종대학교가 무상으로 공연장을 제공하고 재능기부로 적극 참여하여 음악회의 취지를 살리는데 뜻을 함께하였습니다. 무대에서는 발달장애인 첼리스트 김어령, 차지우의 오케스트라 협연으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하나 되는 통합콘서트의 의미를 더하고, 뮤지컬 갈라쇼 공연 등 다양한 콘텐츠로 장애인들에게 문화기회 제공의 폭을 넓혔습니다. 올해도 많은 분이 소중한 마음을 모아 후원해주셨습니다. 콘서트를 통해 모인 4억 8천만 원의 후원금은 소외된 노인들을 위한 복지주택 건립에 보탬이 될 예정입니다. 관심과 응원으로 지켜봐 주신 후원자분들의 정성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에 '더드림스토어(The Dream Store)'를 개원한 일입니다. '더드림'이라는 이름에 우리말로는 이웃사랑의 정신을, 영어로는 장애인에게 꿈을 심어 주자는 희망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2004년 중증장애인생산물시설로 문을 열었던 성남시장애인복합사업장은 그간 종량제봉투 제작, DM발송, 임가공 등을 통해 장애인을 고용해왔으나, 최근 경기상황 악화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더드림스토어'는 장애인들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위한 '성남시장애인복합사업장'의 새로운 도전입니다. 이곳에서는 개인이나 기업에서 기증받은 중고물품이나 재고품을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물품 판매를 통해 얻은 수익금으로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동시에, 자원을 재활용하여 환경까지 보호하는 '착한 소비'로 연결됩니다. 이를 위해 성남사업장 직원들이 하나가 되어 열심히 물건을 모집하였고, 성남 지역의 다양한 기관과 단체들도 협력해 주셨습니다. 후원자분들께도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2017년 7월  
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

정 령 석



이 아이에게 당장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이의 미래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인내할 것입니다.

당신의 용기 있는 행동과 지지가 있기에  
세상은 반드시 더 나아질 것이고,

꽃은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부터 피어나기 때문입니다.



## 소리로 전파하는 나눔문화

**양남규**

2017 올해의 장애인 상 수상자

지난 4월 20일 제37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2017 올해의 장애인 상 시상식이 있었다. 2017년 올해의 장애인 상의 영예를 안은 주인공은 양남규(시각장애) 씨다. 양남규 씨는 선천적 시각장애인으로, 안암 환아 수술비 모금활동, 시각장애인의 정보제공을 위한 성음회 조직, 시각장애인의 권리 증진을 위한 각종 활동 등 장애를 넘어서 사회 전반에 모범이 되고 있다.

시각장애인의 정보전달 사서함 '성음회'와 시각장애인 중창단 '소리보기'를 이끄는 양남규 씨가 나눔 전도사가 된 계기는 딸 현지(26세) 씨다. 아버지에게서 시각장애를 물려받은 딸에게



시각장애인중창단 '소리보기'와 객원싱어 양현제(왼쪽 위)

똑같은 어려움을 겪게 하고 싶지 않아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녔던 양남규 씨. 그러나 100일도 안된 갓난아이의 눈에 메스를 들이대는 위험을 감수할 병원은 없었다. 우연한 기회에 개그맨 송영길 씨에게서 도움을 받아 생후 4개월 만에 수술, 현지 씨는 이제 비장애인처럼 지내고 있다.

“그 당시 제가 성음회를 막 만들어서 활동하고 있을 때라 생활이 정말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때 도움 받은 이후로 사회에 빛을 갠다는 심정으로 수술비 때문에 고생하는 아이를 도와왔습니다.”

양남규 씨는 1998년 한빛맹학교 어린이의 안암 수술비 모금활동을 시작으로 매년 불우 이웃돕기, 수술비 모금 캠페인 및 공연을 통해 2017년 현재까지 총 19명에게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와는 별개로 성음회 활동을 하며 2007년에는 볼라드(차량 진입방지 구조물) 제거 캠페인을 진행하는가 하면 2008년에는 ATM기에 음성지원 및 버튼을 설치하도록 하였고, 2015년에는 한 언론매체와 협의하여 시각장애인의 앱 접근이 가능하도록 개선하기도 했다.

이렇듯 시각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한 성음회는 소리 성, 음성 음, 소리로 하는 모임이다.

이른테면 아나운서 모임이라고 할까. 한국통신(현 KT)에 비슷한 음성사서함 서비스가 있었지만 사서함 하나를 들으면 전화를 끊고 다시 전화해서 들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양남규 씨는 성음회를 조직, 전화를 끊지 않아도 다른 사서함을 들을 수 있는 음성사서함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한다. 정보에 목말라있는 시각장애인의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성음회 녹음실은 매일 온에어다.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 전화사서함이 곧 사라지지 않겠냐는 질문에 양남규 씨는 연세 드신 분들은 여전히 사서함을 사용하신다며 괜찮다고 했다. 하지만 젊은 층까지 사로잡기 위해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사서함을 들을 수 있도록 노력 중이라는 말과 함께 시각장애인 전 세대를 아우르고 싶다고 전했다.

양남규 씨는 현재 성음회의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마음은 아직도 현역이라며 펜 하나를 잡고 실제 방송하듯이 능숙하게 멘트를 했다. 멘트를 하는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성음회 일선에서 물러난 양남규 씨지만 시각장애인 중창단 소리보기를 이끌며 지금까지도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2016년 9월 27일 발매한 ‘예수의 마음’ 등 앨범을 4집까지 낸 중견 가수다. 이 중창단에는 딸 현지 씨가 1.5집부터 객원싱어로 참여하고 있다. 아버지와 딸이 소리라는 하나의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다.

“노래는 저의 삶의 행복이자 살아있음을 알려주는 행복의 열쇠입니다. 제가 전에 중도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노래교실을 운영했는데 노래를 부르다 보니 상처받고 힘들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고 치유가 되더군요.”

두 시간에 걸친 인터뷰에서 느낀 양남규 씨의 인생은 ‘소리’ 그 자체였다. 그는 목소리로 시각장애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하고, 노래로 마음을 치유한다. 올해의 장애인 상을 수상한 지금도 그의 소리는 여전히 쉬지 않고 울려 퍼진다. **M**

「기사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 디딤돌 2017년 5월호」

재능기부를 공연을 빛내주신 모든 출연진과  
함께 해주신 많은 분께 감사드립니다





## 서진이에게 시작된 희망찬 변화

글\_온라인마케팅부 황남위 사진\_미디어홍보부 김봉섭

엄마의 도움 없이는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했던 서진이(남, 10세)에게 조금씩 변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서진이 후기영상  
보러가기



### 10년째 계속되는 재활치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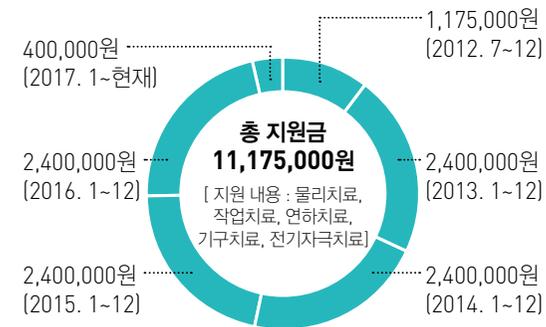
생후 10개월 만에 뇌병변 판정을 받게 된 서진이. 엄마의 도움 없이는 몸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할 거라는 의사 선생님의 말에 엄마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엄마와 서진이의 힘겨운 시간들. 가계 소득의 50% 이상이 서진이의 재활치료비로 사용된 지도 어느덧 10년이 다되어 갑니다.



### 막막했던 서진이의 상황

2012년, 처음 밀알복지재단이 서진이를 만났을 때, 서진이는 구강 및 인두 근육의 부조화와 기능 저하를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혼자서 앉거나 서는 것은 물론 5분 이상 자세 유지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심리·정서적으로도 사람을 좋아하고 밝은 표정을 유지하긴 했지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지 못했고 인지 수준도 낮은 편이었습니다.

### 후원금 지원내역



### 조금씩 나타나는 치료의 결실

밀알복지재단과 서진이의 인연이 맺어진지도 5년째. 서진이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신체적인 변화입니다.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고 몸의 긴장을 완화시키는 치료를 통해 5분 이상 자세 유지가 가능해졌습니다. 손에 볼펜을 쥐어주면 입으로 가져가던 과거와 달리 이제는 스스로 종이에 낙서를 하는 등 신체 곳곳의 소근육도 많이

발달했습니다.

또한 최근에는 용알이가 늘고,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대와 소통하고자 하는 욕구도 증가해 비언어적인 표현을 통해서라도 다른 이와 상호작용 하고자 노력하는 모습도 자주 관찰됩니다. 간식을 고를 때에도 서진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는 등의 의사표현이 가능해졌습니다.

### 희망을 이어갈 수 있기를

태어났을 때부터 시작된 서진이의 재활치료. 10년이라는 긴 시간을 서진이와 서진이 엄마는 오로지 희망 하나로만 버텨왔습니다. 그렇게 지속적인 재활치료를 통해 조금씩 성장하고 있는 서진이의 모습은 보는 이로 하여금 감동과 대견스런 마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앞으로도 밀알복지재단은 서진이의 재활치료를 지속적으로 도울 예정입니다. 서진이가 지금처럼 긍정적인 발달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M



“모든 게 다 저 때문이에요”

1.5kg의 미숙아로 태어난 유리는 출생하자마자 3개월 동안 인큐베이터에서 생활해야 했고 이후로도 잦은 합병증과 경기증세로 입퇴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에서 시집 온 어머니는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유리에겐 더 좋은 치료를 해주지 못하는 것이 미안하기만 합니다.

“유리를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미발달된 청각, 잘 자라지 못한 손과 발, 가리앉은 눈꺼풀... 유리는 작은 몸으로 크고 작은 수술과 치료를

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생계를 감당하기에도 막막한 유리의 가족은 유리가 건강해질 것이라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오늘도 웃으며 살아갑니다.

밀알복지재단은 지난 6월 16일(금)에 MBC '나누면행복' 방송을 통해 유리의 사연을 소개하였습니다. 밀알복지재단은 유리와 같은 장애아동들에게 재활치료비와 수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장애아동들이 치료를 받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전해주세요. 

# 유리의 작은 손을 잡아주세요

글\_미디어홍보부 박기현 사진\_미디어홍보부 박병도

희소난치성질환(코넬리아 디란지 증후군)을 가지고 태어난 5살 유리는 작은 침대에서 힘겹게 하루를 살아갑니다.



※ 코넬리아 디란지 증후군 : 신생아 3만 명 중 한 명꼴로 발생하는 희소질환으로 유전자의 변이로 인해 얼굴과 몸에 기형이 나타나고 성장 장애와 정신지체를 보임.

“어머님, 놀라지 마세요...  
아이 손가락이 하나씩밖에 없어요”

유리가 태어난 기쁨도 잠시, 어머니는 의사로부터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리는 5살이 된 지금, 들을 수도 말할 수도 없고,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게다가 음식을 잘 삼키지 못해 콧줄을 통해 분유를 섭취하고 있고 이마저도 토해내기 일쑤입니다. 현재 유리의 몸무게는 겨우 8kg로 한 살 어린 동생 몸무게의 절반도 채 나가지 않습니다.

단칸방에 살고 있는 여덟 식구들

유리는 17평 남짓한 작은 단칸방에서 부모님과 다섯 남매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늘 아이들로 북적이는 통에 실 틈이 없는 어머니는 아픈 유리를 제대로 돌봐주기가 어렵습니다. 아버지의 밤샘 근무로 월 190만원의 소득이 있지만 여덟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여 주로 라면으로 끼니를 해결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으로 이 아이를 지켜주세요. 밀알복지재단은 장애아동 의료비지원사업을 통해 치료가 필요한 장애아동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희망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 후원문의 1899-4774

- 후원 계좌
- 우리은행 322-058119-13-001
- 신한은행 140-006-896511
- 하나은행 810-213130-00104
- 외환은행 630-009630-877

(예금주 : 밀알복지재단)





## 날개, 다시 꾸는 꿈



글\_홍보팀 오솔길 사진\_재능나눔 이석호, 홍보팀 강효진, 오솔길

지난해 말, 날개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2016년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 후원을 받을 수 없다'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악기 마련과 레슨비, 연습실 대관료 등 날개 활동에 필요한 모든 자원이 끊길 위기에 처하자, 날개의 활동에도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 날개, 지적·자폐장애인으로 구성된 첼로앙상블 창단 이후 눈부시게 성장

2012년 창단된 '날개'는 지적장애·자폐장애 아동과 청소년 21명으로 구성된 첼로앙상블입니다. 아이들이 첼로를 통해 사회와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고, 좋은 연주자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시작했습니다. 창단 후 4년, 처음엔 의자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조차 어려워하던 아이들은 어느새 '전국장애학생 음악콩쿠르



첼로를 통해 세상과 소통하기를, 좋은 연주자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시작된 '날개'

금상', '교육부 장관상' 등 각종 상을 휩쓸기 시작했고, 내로라하는 무대에 초청연주를 다니며 눈부신 성장을 이뤘습니다. 특히나 우리를 감동케 했던 건 첼로 앙상블을 통해 전에 없었던 사회성을 보이는 단원들의 달라진 모습이었습니다.

### '날개 살리자' 팔 걷어붙인 단원들과 엄마들 그 후, 날개에게 찾아온 기적

"멋진 첼리스트가 될 거예요", "매일 매일 첼로 연주를 하고 싶어요", 어느새 아이들의 가장 소중한 친구가 되어버린 첼로. 그러나 이대로 날개의 새로운 후원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날개는 해체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밀알복지재단은 날개 단원들의 어머니, 오새란 음악감독과 선생님 등 날개와 관련된 모든 이들과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날개의 활동 재개를 위해 팔을 걷어붙인 겁니다. 언론과 크라우드 펀딩, SNS를 통해 날개의 상황을



날개가 처한 상황에 안타까워 하며 보도를 자처해 준 언론들



'날개가 마음껏 꿈 펼치도록' 지원 나선 코리아리재보협(주)



알렸고, 날개가 계속해서 첼로를 연주할 수 있도록 응원해 줄 후원자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이 이어진 것은 물론, 크라우드 펀딩은 119%를 달성하며 목표치를 훌쩍 넘겼고, 날개가 마음껏 첼로를 할 수 있도록 모든 활동비를 지원하겠다는 기업(코리안리재보험(주))까지 나타난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더이상 첼로를 할 수 없다’는 말만은 전해주지 않기 위해 달려왔던 시간들이 드디어 결실을 맺었습니다.

**날개에게 앞으로 ‘꽃길’같은 일들만 있기를...**

**날개, 꽃길만 걷자 콘서트 개최**

날개는 그렇게 해피엔딩을 맞이했습니다. 지난 4월 18일, 장애인인 날을 앞두고 열린 <날개, 꽃길만 걷자>는 해체 위기에 놓였던 날개가 후원자들의 성원으로 다시 첼로 연주를 재개할 수 있게 되면서 열린 감사 콘서트입니다. 콘서트명인 ‘꽃길만 걷자’는 앞으로도 ‘날개’가 ‘꽃길’을 걷듯 좋은 일들만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콘서트는 날개의 활동 재개를 위해 힘써주신

80여명의 후원자들을 초청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슈퍼맨’, ‘피치카토 폴카’ 등 날개가 연주한 7곡의 연주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감동스러웠습니다. 재능기부로 콘서트의 사회를 맡은 배우 권오중씨는 날개 단원들과 관객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며 웃음과 감동을 이끌어냈습니다. 다시 첼로를 연주하게 된 소감에 평소 말이 없는 유지영(자폐장애 2급) 단원이 “기뻐”라고 대답했을 땐 코 끝이 찡해져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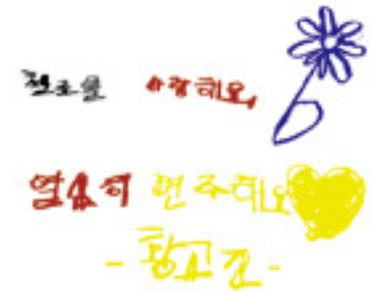
콘서트에는 황교진(자폐장애 1급) 단원의 어머니 박화영씨가 아들에게 쓴 편지를 낭독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민들레꽃이 움트는 계절이면 온 동네 민들레꽃을 찾아 없어지던 교진이 어느덧 이렇게 커서 연주회를 다니는 모습에 감사하고 행복하다”고 입을 연 어머니는 이어 “엄마는 너의 장애를 인정하기 싫어서 세상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그런데 엄마가 두려워하는 사이에 교진이는 ‘첼로’라는 세상에 나와 의젓하게 성장해 있더라”며, “아직 실력도 부족하고, 착석 또한 힘들지만 첼로를 잘하고 싶어 노력하는 모습이 사랑스럽다. 오늘 씩씩한 모습으로 잘 했듯 내일은 더 잘할 거라 믿는다”고 말해 관객들의 눈물을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콘서트에 참여한 한 관객은 “진심을 다해 첼로를 연주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감동해 눈물이 났다”며 “날개 단원들에게 처한 상황을 전해 듣고, 아이들에게 좋은 후원처가 나타나길 기도했는데 그 꿈이 이뤄져서 기쁘다. 앞으로도 날개에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날개’에 숨겨진 두 글자, ‘함께’라는 말**

이 날 <날개, 꽃길만 걷자> 콘서트에는 드러나지 않은 두 글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함께’라는 말입니다. 늘 아이들 곁에 있는 어머니들, 날개의 활동을 지지해준 후원자들, 노고를 아끼지 않은 재능기부자들... 단원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용기가 돼준 이들이 있었기에 날개는 연주를 재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해체 위기를 딛고 일어난 날개는 다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은 오늘도 좋아하는 첼로를 연주하며,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조금은 느릴지 몰라도, 작지만 한 걸음씩 성장하는 아이들의 모습을 계속 지켜봐 주세요. 날개를 위해 함께해 주신, 앞으로도 함께해 주실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합니다. M



2017년 소망을 스케치북에 쓴 '날개' 아이들

# 희망TV SBS 마다가스카르 이동진료 동행취재기

글 미디어홍보부 박지숙 편집 미디어홍보부 권태윤 사진 밀알복지재단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섬인 마다가스카르 오지 마을 숲 속. 들판에서 수술하는 일이 많아 '부시맨 닥터'라 불리는 의사 이재훈 지부장이 있습니다. 제1회 이태석 상 수상자이기도 한 그는 2006년도부터 정부지원이 미치지 않는 오지마을을 찾아다니며 이동진료를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와 동행취재하며 현장의 이야기를 희망TV SBS와 함께 세상에 알리고자 했습니다.

## 돈이 없어도 거리가 멀어도

밀알복지재단 마다가스카르 지부가 있는 수도 안타나나리보(Antananarivo), 이동진료를 떠나기 전, 이른 아침부터 환자 한 명이 자전거에 실려 왔다. 마다가스카르의 대표적 빈민촌인 쓰레기마을에 사는 페르손 씨였다. 그는 일주일 전부터 몸이 안 좋더니 날이 갈수록 증세가 심각해졌다고 했다. 그래서 이재훈 지부장을 무작정 찾아온 것이었다.



이재훈 지부장에게 진료 받는 페르손 씨

진료팀은 자료를 찾고, 회의를 진행하며 페르손 씨의 증세를 파악하고, 치료방법을 찾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질 못했다는 그는 이재훈 지부장을 찾아오면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무작정 찾아왔다고 했다. 사실 많은 빈민촌 사람들이 페르손 씨처럼 이재훈 지부장을 무작정 찾아와 치료를 요청한다고 한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과거 이동진료팀이 마을을 방문했을 때 치료를 받았던 마리아타 양이었다. 그녀는 어머니가 말라리아에 걸려 위독하다고 했다. 마을에 있는 병원엘 갔지만, 치료비가 부담되어 더는 병원에 있을 수 없어서 집으로 모시고 왔다고 했다.

마다가스카르 지부가 있는 수도 안타나나리보에서 마리아타가 사는 피아나란초우(Fianarantsoa)의 오지마을까지는 차로 내리달려도 10시간은 족히 걸리는 거리였다. 이곳 사람들은 돈이 없어도 거리가 멀어도 이재훈 지부장에게 연락하면 어떻게든 치료받을 수 있을거라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았다.

이동진료팀은 결국 고심 끝에 기존의 계획을 약간 수정해서 마리아타 가족이 사는 마을도 방문기로 했다.



## 고작 세 시간

베이스캠프인 미찐주(Mitsinjo)로 향하는 길은 험한 길의 연속이었다. 그렇지만 해가 지면 아무 것도 보이지 않는 아프리카 오지이기에 서둘러야만 했다. 그런데 한참을 가던 중, 이동진료 차량이 진흙 구덩이에 빠져버리고 말았다. 이재훈 지부장은 최소 인원만 차량에 남겨두고 짐들은 짊어지고 걸어서 베이스캠프로 가자며 신속한 결정을 내렸다. 험난한 길이었지만 해가 지기 전에 도착해야 조금이라도 더 많은 환자들을 진료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모두가 체력이 바닥 나 무거운 발걸음을 옮기고 있을 때였다. 우리 일행 앞으로 많은 현지인이 머리에는 짐을 이고, 또 누군가는 아이를 안고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광경이 보였다. 어디를 그렇게 열심히 가느냐고 물었더니 우리가 가는 미찐주에 가면 외국인 의사한테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서 가는 길이라고 했다. 그때 시간이 해가 저물어가던 오후 5시 경이었는데, 새벽같이 출발해서 저녁이 되도록 걸어서 이동하고 있던 것이었다.

차는 빠지고 험한 길을 걸어 몸이 너무 피곤했던 차였다. 이동 중 발을 헛디뎠더니 금이 가버린 내 손목의 통증도 잊어버릴 만큼... 우린 고작(?) 3시간을 걸었을 뿐인데, 우리에게 치료를 받기 위해 하루 온종일을 걸어온 사람들을 보며 그들의 심정과 절실함을 조금이나마 알게 된 값지고 소중한 시간이었다.

그렇게 해는 지고 칠후 같은 어둠이 내린 뒤에야 우리 베이스캠프인 미찐주에 도착했다. 이동진료팀은 아픈 환자들이 많으며 쉽다며 겁도 없이 곧바로 진료를 시작했다.



집을 한기득 싣고 미찐주로 이동하는 이동진료팀 차량



진흙 구덩이에 빠진 차를 뒤로하고 이동진료소로 걸어가던 길에 만난 현지인들은 진료를 받기 위해 하루 온종일을 걸어왔다고 했다.

**생명을 살리는 일**

도착해 짐을 풀기도 전에 다급한 모습의 한 아이 엄마가 걱정 가득한 얼굴로 어린 아들을 안고 진료소를



심각한 말라리아 증세로 이동진료소를 찾은 이동과 어머니

찾았다. 아이의 몸은 불덩이 같았다. 눈동자는 초점이 없고, 몸이 축 쳐진 게 아이의 상태가 꽤나 심각해 보였다. 아이는 울음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다. 이재훈 지부장은 아이의 상태를 살피더니 매우 위험하다고 했다. 심지어 상황을 장담할 수 없다고까지 말했다. 이재훈 지부장은 피곤할 법 한데도 아이의 곁을 떠나지 않고 밤새 곁을 지켰다. 해가 뜨기 전 아이의 울음소리가 진료소를 가득 채울 만큼 크게 들렸다. 어제 생사를 오가던 바로 그 아이의 반가운 울음소리였다. 아이도 이재훈 지부장의 정성과 마음을 알아차린 것일까? 우리는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어서 감사했다.

**실새 없이 몰려드는 사람들**

이동진료소에는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실새 없이 사람들이 몰려왔다. 5일 간의 이동진료 기간 동안 750여 명이 이동진료소를 찾았다.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기회이기에 먼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쌀부터 술단지까지 챙겨 와서 이동진료소 근처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진료를 기다렸다. 오지마을 이동진료소에서나 볼 수 있는 진풍경인 듯했다.

**66%가 말라리아 감염**

진료팀은 진료를 시작하기 전 이동진료소를 찾은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말라리아 검사부터 실시했다. 검사결과는 충격적이었다. 750여 명의 환자 중 500여



진료를 위해 대기하는 사람들



늦은 시간까지 진료를 기다리는 사람들



말라리아를 검사하는 이동진료팀원



수술 후 치료를 받고 있는 삼비안드루

명에게서 말라리아 양성반응이 나온 것이다. 출발 전 의료물품을 챙겨 올 때 말라리아 환자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해 테스트 키트와 약을 많이 챙겨왔지만, 우리의 예상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말라리아에 감염되어 있었다. 진료를 시작한 지 하루 만에 말라리아 약 300여 개를 소진해 버렸다. 미찐주가 말라리아 창궐지역이라는 말이 실감났다. 모기장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고, 간단한 치료약이면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게 말라리아인데, 미찐주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그 간단한 치료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안타까운 눈물**

진료를 받기 위해 길게 줄지어 서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눈에 띄는 한 아이가 있었다. 눈꺼풀이 뒤집어진 아이의 모습은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아프고, 그 따가움이 느껴질 정도였다. 꺾마른 채 힘도 없이 지쳐 보인 아이, 삼비안드루는 눈이 꼭 닳고 싶어서 무려 7시간을 걸어서 왔다고 했다. 이재훈 지부장은 아이의 상태를 확인한 후 긴급히 수술을 결정했다. 그런데 수술 후에도 삼비안드루의 눈은 여전히 감기질 않았다. 삼비안드루는 실망했을 법한데도 의젓한 모습으로 감사하다고 했다. 그 말에 이재훈 지부장이 눈물을 흘렸다.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미안하다고...

많은 마다가스카르 사람들은 질병이 저주에서부터 비롯된다고 믿고 있다. 그러다보니 질병을 가진 채 태어난 아이들은 저주받은 아이가 되어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버리고 만다. 의사의 비율이 인구 1,000명당 1명도 안 되는 0.16명인 마다가스카르. 그들에게 가난과 질병이 신이 내린 저주가 아니라고 말해주기 위해서, 고통 받는 사람들을 치료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재훈 지부장과 현지 직원들은 1년에 약 20,000킬로미터를 이동하며 소외된 이웃들을 찾아가 매 이동진료마다 20여 건의 수술과 400여 명의 진료를 진행하고 있다. M

## Interview

# 나눔은 마음의 문제입니다

## 채명병 회원

글\_회원관리부 신수연 편집\_미디어홍보부 권태윤



작은 후원이라고 말했습니다. 후원에 크고 작음은 없지만, 그가 말한 '작은 후원'은 지금으로부터 6년 전인 2011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게 밀알복지재단과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사진작가 채명병 회원. 그는 현재 약간의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장애에 대한 편견을 넘어 세상에 희망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작가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진으로 세상을 그리고, 또 세상과 나누며 살고 싶은 사진작가 채명병입니다.

### 밀알복지재단을 통해 후원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제가 가진 재능이 사진이다 보니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영정사진과 경제적으로 힘든 외국인 노동자들의 여권 사진을 찍어주고 있어요. 특히 영정사진은 그분들 생의 마지막 기억이고 기록물이잖아요. 어르신들은 그걸 참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경제상황이 녹록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여권사진조차 부담이 되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걸 나누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 뭐 그런 거죠.

그러던 차에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 우연하게 밀알복지재단에서 하는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 예배를 접하게 되었어요. 저는 기독교적 사랑을 실천하고 싶었어요. 처음엔 소액기부로 시작했어요.

### 이번에 노인들을 위해 고객을 후원해 주셨는데 이유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제 어머니는 그 당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다 그러했듯이 힘겹게 자식들을 키우셨어요. 강원도 삼척에서 주변의 도움없이 9남매를 키우셨거든요. 억척같이 가족을 돌보시던 기억이 생생해요. 가난했고, 어려웠죠. 어렵게 살다 보니 그게 한이 되어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 꼭 한적한 곳에 집 짓고 여유롭게 살아야지' 하며 꿈을 품고 열심히 살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위해 고생하시던 사랑하는 어머니를 떠나보낸 후, 살면서 무엇이 중요한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사는 게 정말 행복한 삶일까? 나만 잘 산다고 되는 걸까?' 하는 생각 속에 주위를 둘러보았죠. 힘겹게 살아가는 어르신들을 볼 때마다 어머니 생각이 간절해지더라고요. 무얼 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그때 아내가 의미 있는 기부를 하면 어떻겠느냐며 말을 꺼내더라고요.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나뉘어 이웃을 생각하며 살아왔지만, 어머님을 기리는 의미 있는 나눔을 하면 좋겠다 싶었어요. 저희도 넉넉한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의 우리를 있게 해 준 어르신들이기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 생각되어 결심하게 되었죠.

**장애를 가지고 계신데 힘든 시기는 없으셨나요?**

제가 유년 시절일 적에는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기가 유독 힘든 시기였어요. 그 당시는 장애에 대한 인식은 물론이고, 제도, 환경 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든 시절이었죠. 장애를 가지지 않은 비장애인이 장애인을 이해하기란 사실 힘들어요. 피부로 와 닿지 않으니까요. 그렇지만 학교 등에서의 장애에 대한 교육은 미비했었고, 장애인들은 그저 사람들의 부담스런 시선을 받으며 살아야 했죠. 업무 때문에 이곳저곳 다니다 보면 많은 제도적 발전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아쉬울 때가 많기도 해요.

그렇다고 해서 마냥 아쉬움만 가진 채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저는 사진을 통해 장애에 대한 편견을 극복했고, 또 앞으로 사진을 통해 장애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선물하고 싶어요. 같이 사는 세상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함께 희망을 만들어 가야죠.



**끝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전쟁을 거치고 힘든 시절을 훌륭하게 이겨내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의 여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념도, 가치도 뛰어넘는 더불어 사는 세상일요. 또 장애를 가진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제법 힘든 삶을 살아 가야 해요. 지나고 보니 장애를 가진 저를 키우시느라 내 어머니 또한 그러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중 가장 힘든 게 장애인을 구분 짓는 거예요. 그냥 구분 짓지 않고 살아가면 좋겠어요.



전 장애를 가진 채 태어났고, 또 지금껏 살아왔고, 앞으로도 장애를 가진 채 살아가겠죠. 살면서 힘들 때도 있었지만 사실 그럼에도 감사한 것들이 더 많아요. 어떤 문제가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과정일 수 있듯이 저는 장애를 가졌기에 오늘의 행복이 있다고 믿어요. 이제는 제 곁에 안 계시지만 그 누구보다 자식들을 위해 헌신했던 사랑하는 어머니와 함께했던 시간, 사랑하는 아내와 두 딸과 함께 살아온 시간 또 살아갈 시간까지.. 모든 것이 고맙죠.



*“인생은 짧잖아요. 오래 남을 것 같았고, 영원할 것 같았는데 참 순간인 것 같아요. 그러니 남은 생을 살면서 제가 가진 것들을 조그마한 것이라도 나누며 살고 싶어요. 나눔은 결코 넉넉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문제더라고요.”*

취재를 위해 스튜디오를 찾은 우리를 따뜻하게 반겨주던 채명병 회원과 부인 장일심 회원. 그 미소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인터뷰를 진행하며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밀알복지재단을 통해 세상에 따뜻함을 전하고자 하는 모든 밀알 가족의 마음을 알기에 그 마음 깊이 새겨 같이 사는 세상을 위한 한 알의 밀알이 되겠습니다. **M**



1997년 밀알학교 준공 기념식



2017년 밀알학교 20주년 기념식

## 밀알학교 20년

글\_미디어홍보부 강효진 사진\_밀알복지재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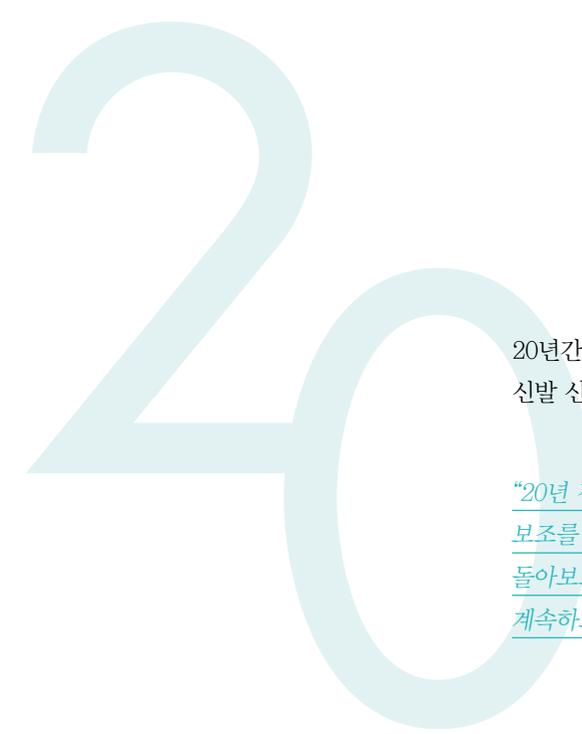


우수자원봉사자 기념패 전달

“제 숨이 끊어지기 전에 제 아이를 먼저 데려가 주세요.”

장애인 아들을 둔 한 어머니의 눈물 속에서 터져 나온 고통스러운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기도와 눈물이 씨앗이 되어, ‘밀알학교’라는 이름의 특수학교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렇게 20년 전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문을 연 밀알학교가 지난 5월12일 개교 20년을 맞이해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졸업생과 학부모 430여 명, 그리고 밀알학교의 교직원들이 참여하여 모두가 함께 이뤄온 밀알학교 역사의 발자취를 돌아보았습니다. 근속직원 및 우수 직원 표창과 함께 20년간 자원봉사를 해 온 김영희, 이계옥 씨에게 특별한 기념패를 전달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우수자원봉사자로 선정된 두 분은



20년간 꾸준히 밀알학교의 학급 수업 보조를 맡아 화장실 사용과 신발 신기, 점심 지도 등으로 학생들과 함께 해주신 분들입니다.

“20년 전 개교하던 때부터 매주 금요일 3시간씩 중학생들의 학습 보조를 해왔어요. 순수한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자신을 돌아보고 배운 적도 많아요. 앞으로도 힘닿는 데까지 봉사활동을 계속하고 싶어요.”

- 자원봉사자 김영희 씨(64)

20년의 역사. 100년, 200년의 유구한 전통을 자랑하는 다른 일반 명문 학교들에 비하면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는 시간일지도 모르지만, 밀알학교의 20년은 그 의미가 남다른입니다. 장애 특수학교라는 사실 말고도, 밀알학교는 장애인 시설에 대한 극심한

남비현상<sup>1)</sup>을 극복한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1996년 밀알학교 건축 당시만 하더라도, 지역 주민들은 특수학교가 세워지는 것을 거세게 반대하였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직접 공사장을 찾아와 반대 의견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공사 완공을 위해 법정 소송을 거치는 등 학교 설립과정엔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여 년이 지난 지금, 밀알학교는 지역사회를 위한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으며 주민들과 함께 공존하고 있습니다. 교내 미술관과 음악 홀, 카페 등을 연중 개방해 주민들은 학생들을 자연스럽게 접하고, 나아가 함께 어울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학교에서 장애 아동을 돌보는 등 적극적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주민들도 많아졌습니다.

밀알학교는 특별히 자폐장애, 지적장애 학생들의 자립을 목표로 설립되었습니다. 개교 당시 유치원 3학급, 초등학교 10학급으로 시작한 밀알학교는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 전공과정까지 확대되어 총 32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57명의 교사와 70여 명의 직원 및 보조원이 206명의 장애학생을 맡고 있습니다. 밀알학교는 지난 20년간 고등부 기준 293명의 졸업생을 배출했으며, 졸업생들은 일반 기업과 보호작업장, 근로작업장 등에서 어엿한 사회인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특성과 능력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밀알학교는 2001년, 2010년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각각 평생교육 우수학교, 특수학교 평가 우수학교 표창을 받으며 대한민국 발달장애 교육을 선도하는 특수학교의 명문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 “장애인 학교건립 주민들 방해말라”

서울지법, 밀알복지재단 공사방해중지 가처분신청 받아들여

서울지법 민사합의2부(재판장 공사를 방해하지 말라”고 결정  
 판결을 부당판시하는 3일 공시당 했다.  
 세에 학교를 상속중인 사법처리 재판부는 결정에서 “이 사건  
 법원 밀알복지재단(이사장 손경 밀이 비롯 이 지역 아동을 위한 초  
 초)이 학교 건축공사를 임박한 시 권하고 부당한 저항과 도발이 주  
 을 간담주 임명된 사사회의 주민 이라도 받을 산 재판부가 정당한  
 적에이까지 등을 상대로 낸 중단 게 건축여건을 받아 공사를 하고  
 유지 및 공사방해중지 가처분신 있는 만큼 지역주민들은 공사를  
 청을 받아들여 “이러한 주민들은 방해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민국의 정서상  
 장애인은 헌법상 소용과목의 권리  
 이의 구급이 필요로 있다”며 “이  
 지역 아동을 위한 교육 수단을 있는  
 것 불만을 주는 원만 정서장애이  
 원과 불만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만큼 “공공학교 부지 확보를 이유  
 로 주민들이 공사를 방해한 것은  
 도무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밀알복지재단은 지난해 11월부터  
 이 서울 강남구 일대엔 밀알복지  
 서울여과학교인 밀알학교 건축 공  
 사를 시작했으나, 인근 아파트 주  
 민들이 공사를 방해하자 가처분신  
 청을 냈다. 황남구 기자

공사 방해를 하던 주민들 모습과 법원의 공사방해중지 가처분신청 판결 기사



1) 남비현상 : (Not In My Backyard : NIMBY) 내 뒷마당에는 안돼! 라는 말의 약자인 남비현상은 지역이기주의로도 불린다. 이 현상은 장애인 시설, 노숙자 시설, 공항, 화장장, 교도소와 같이 사회에는 꼭 필요하나 많은 주민이 혐오하는 특정 시설, 혹은 땅값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시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사회적인 현상을 가리키는 말이다.



밀알학교 20주년 역사를 담은 연혁집과 교육집이 발간되었다.

“밀알학교는 장애아를 둔 부모들의 눈물과 희망,  
 그리고 수많은 기부자의 정성으로 지어진 장애아의  
 배움터입니다.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 주민 모두가 함께 행복한 밀알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홍정길 밀알복지재단 이사장

올해로 20주년을 맞이한 밀알학교는 지속적인 지역주민과의 소통의 노력을 통해 많은 변화를 이끌어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특수학교의 전반적 현실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서울시에서는 2002년 개교한 종로구 경운학교를 마지막으로 지난 15년간 새로운 특수학교가 생기지 못했습니다. 특수학교 설립을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는 20년 전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특수학교의 숫자는 그 수요에 비하면 턱없이 모자란 형편입니다. 특히 발달장애아동을 위한 정서장애 특수학교는 전국을 통틀어 7곳뿐입니다. 모두가 함께, 밀알학교 20년의 역사를 바탕으로 외치는 구호가 지닌 무게감에 대해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멈춰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M



현재 밀알학교의 모습



## ‘빛’나는 청춘

### 홍익대학교 광고 소모임 ADLIP의 재능기부 이야기

글\_전략사업부 정성아 사진\_밀알복지재단

2016년 11월 7일 구로역 상행선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아프리카 말라위 소년 ‘아브라함’이 등장했다. 구로역에서 만난 아브라함의 모습은 태양광랜턴 아래에서 밝게 웃는 그림으로 묘사되어 있었다. 스크린도어의 상, 하단을 태양광랜턴의 빛으로 연결하여 해외 에너지 빈곤국가 아이들의 꿈을 비춰달라고 호소하는 이 스크린도어 광고에는 조금 특별한 의미가 담겨있다. 툭툭 튀는 아이디어와 카피는 여느 프로 광고기획자의 솜씨가 아닌 대학생들의 손에서 태어났다. 예비광고인, 홍익대학교 광고 소모임인 ‘ADLIP(에드립)’이 바로 그 주인공들이다.

홍익대학교 광고 소모임 ADLIP은 2015년부터 라이팅칠드런 캠페인을 위해 모금이벤트의 아이디어 제안, 스크린도어 광고 제작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에 자신들의 재능을 나누고 있다.

“뿌듯하죠. 그 더운 날 누가 시키지도 않은 일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여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기를 반복하고, 저희의 작품이 지하철에 걸렸을 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벅찬 감정이 들기도 했어요. 어찌보면 전문 광고인도 아닐뿐더러 지하철 광고를 실제로 만들어 본 적은 더더욱 없는 저희가 말기에는 과분한 프로젝트인데, 밀알복지재단에서 믿고 판(?)을 깔아주신 덕분에 마음 놓고 뛰어놀았던 것 같습니다.”

- 홍익대학교 광고 소모임 ADLIP 8기 회장 김장한 학생

\* 라이팅칠드런 캠페인은 에너지가 부족한 국가의 어린이에게 후원자가 직접 조립한 태양광랜턴을 보내주는 밀알복지재단의 친환경 에너지 나눔 캠페인이다.



라이팅칠드런 지면 광고 ADLIP의 아이디어 스케치

“공익성이 있는 광고이기 때문에 어떻게 기획하고 디자인할지 더 고민한 거 같아요.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학생들 각자의 의견이 모여서 더 빛을 낼 수 있는 활동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 홍익대학교 광고 소모임 ADLIP 유진 학생

“이 광고가 얼마나 효과적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마음을 돌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저희 자신에게, 또 누군가에게 상징적인 의미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우리가 가진 재능만으로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고, 실제로 그 이후 진행되었던 다른 프로젝트들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저희의 이런 모습이 누군가에게 용기를 주어 선행의 선순환을

이어나가게 할 수도 있겠죠. 앞으로도 기회가 된다면, 더 다양한 분야에서 저희가 가진 재능으로 누군가에게 희망을 전하는 광고를 만들고 싶습니다.”

- 홍익대학교 광고 소모임 ADLIP 8기 회장 김장한 학생

누구에게나 젊음의 때가 있다. 그 시기에 하는 경험은 인생의 큰 자산이 될 수 있어 더 많은 활동을 위해 노력한다. 그 수많은 활동 중 대학생의 신분으로 빛을 나누는 라이팅칠드런 캠페인을 위해 열정을 쏟아 준 그들의 노력은 ‘빛’나는 활동이었다. 라이팅칠드런 캠페인을 위해 기꺼이 그들의 재능을 나눠준 홍익대학교 광고 소모임 ADLIP 학생들에게 감사드리며, 함께 할 앞으로의 활동을 응원한다. M

“재능기부를 통해 저희도 많이 배우고 있어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광고니까 보람도 배가 되었고요. 특히 라이팅칠드런 캠페인은 ‘빛’을 나누어서 생산적인 활동과 꿈을 도울 수 있다는 점이 특별하게 다가왔어요. 그들을 직접 도울수는 없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광고를 통해 조금이나마 희망이 전달되었으면 좋겠어요.”

- 홍익대학교 광고 소모임 ADLIP 유진 학생

ADLIP은 올해 밀알복지재단과 ‘재능기부 협약식’을 맺고 본격적으로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라이팅칠드런 캠페인의 신문광고 제작 프로젝트에 참여해 현재 제작을 마무리 짓는 중이기도 하다. 이번 재능기부를 통해 제작된 라이팅칠드런 캠페인 신문광고는 하반기, 다양한 매체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아이디어 회의를 하고 있는 ADLIP



의사가 되어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고 싶다는 말라위의 이브라함과 그 꿈을 지원하는 지하철 스크린 도어 광고

# 희망이 있다면 외롭지 않다

글\_ 김혜경 이화여자대학교 국제대학원 초빙교수

지난 5월 밀알복지재단의 전문위원인 김형식 교수의 <희망이 있다면 외롭지 않다> 출판기념회를 가졌습니다.

한반도국제대학원 김형식 교수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이자 장애포괄적 국제개발협력(Disability Inclusiv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래 글은 밀알복지재단에서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혜경 교수의 '김형식 교수 출판기념회' 축사 원문 중 일부를 발췌수정한 것입니다.

제가 처음 김형식 교수를 만난 건 약 20년 전입니다.

당시 저는 베트남에 직업훈련센터를 세우는 일을 맡고 있었는데,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김형식 교수는 베트남의 전쟁피해 장애인들을 돕는 일을 제안하셨습니다. 이 일을 위해 구체적인 사업 구상도 갖고 계셨고, 모금에도 앞장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이런 열정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궁금했지요. 약속할 때는 몰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왼손이 고무손이었습니다. 궁금한 걸 참지 못하는 저는 그의 과거지사를 캐물었고, 오늘 이 책에 나온 대강의 줄거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지구촌나눔운동'에서 김형식 교수를 모시고 전쟁피해 장애인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베트남전 민간 피해자들에게 의수, 의족을 지원하였고, 캄보디아, 이라크, 미얀마 등 곳곳에서 전쟁과 지뢰로 팔다리를 잃은 장애인들에게 의수, 의족, 휠체어를 지원했습니다. 또 베트남 하노이에 '한·베 장애인 재활센터'를 설립하여 장애인에 대한 종합재활사업을 구현해 보고자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UN장애인권리협회의 회의장에서 발언하고 있는 김형식 위원(하단 맨 왼쪽)

## 전쟁고아 김형식

우리는 해방 후 분단 한국의 아픔 속에 끔찍한 전쟁을 치렀고, 아직도 그 고통 속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엔 김형식 교수처럼 기구한 운명을 가졌던 사람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러한 운명에 굴하지 않고 새로운 운명을 개척한 분입니다. '6살 때 한국전쟁에서 팔과 어머니를 잃었지만, 그것이 수많은 사람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축복이었다'고 고백하신 그는 진정 승리한 인생을 사신 분입니다. 그는 본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향한 편견은 대단했다. 우리도 그들 자녀와 하나도 다를 게 없는데... 다른 게 있다면 버거울 만큼 깊은 상처를 입고 사랑에 굶주리고, 버림받고, 격정과 외로움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뿐이었다.'

소년은 더운 여름철에는 길거리를 다니며 구걸하고, 철로 변에서 석탄가루를 줍고, 여름밤에는 길바닥에서 자고 겨울에는 가마니 몇 장으로 추위를 맞아야 했지요. 간혹 폭격을 당하면서도 길거리의 모험과 자유를 즐겼습니다. 이때부터 교수님은 '자유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 토레이 박사를 만나다

소년 김형식은 대전에서 왼팔에 깡통 하나를 달고 구걸하다 만난 토레이 박사로 인해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그가 데려간 '한국 수족절단자 직업재활원'에서 수많은 장애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재활원에서는 통과외례로 쓰름을 하는데, 맨 처음 쓰름 대상이었던 다리가 하나 없는 아이는 지금까지 그의 친구이고 베트남 전쟁피해 장애인지원사업의 후원자였습니다.

장애인들은 직업재활원에서 각종 기술을 배웠지요. 그는 '장애인에겐 살아간다는 일이 매우 어렵고 교육받을 기회도 많지 않으니 직업기술을 확실하게 습득해야 한다'는 말을 귀가 따갑게 들었습니다. 토레이 박사가 일요일 아침이면 흰 쌀밥 한 그릇에 쇠고기를 듬뿍 넣은 미역국을 주셔서 일요일을 기다리곤 했답니다. 김형식 교수는 재활원에서 계절의 변화를 축복으로 여기며, 근심·걱정에 짓눌리지 않고 생활했다고 회고합니다.

토레이 박사는 중국에서 33년간 선교사로 봉사하고 회갑을 맞아 조기 은퇴를 하려던 차에 뉴욕에서 한국에 가달라는 요청을 받고 1952년에 한국에 오셨습니다. 박사는 전쟁으로 팔다리를 잃은 장애인들을 위해 미국 장로교단의 기독교 세계봉사회, 유엔군 산하 민간후원위원회, 세계 각처의 선교단체, 한국군, 미국

'문제는 사람들이 대부분 고아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모두 도둑이 되거나 비행 소년이 될 거라 생각했다. 전쟁의 희생자들인데...'

크리스천들로부터 도움을 받아 '한국 수족절단자 직업재활원'을 시작하셨습니다. 1963년에는 미 1군 장병의 도움으로 세브란스 병원에 장애인센터를 설립하셨습니다.

토레이 박사 외에도 소년 김형식의 후견자가 되어주었던 스티스마 선교사 부부, 미시간 주 '골든 레이디스 클럽', 거창고등학교 전영창 교장 선생님, 사회정책을 공부하던 영국의 여동생 설리 등 많은 이들이 그의 인생 여정에 함께 했습니다.

### 나의 친애하는 어머니

김형식 교수의 어머니 카터렛 부인은 어느 날 옥스팜으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에는 세계 여러 나라 아이들 20여 명의 사진과 인적사항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아이들의 비참한 이야기를 읽어 내려가다가 '김형식'이란 이름에 눈길이 멈췄죠. 폭격으로 팔을 잃었기 때문에 다른 아이들보다 어려움이 더 크겠구나 싶어서 아동결연대상으로 형식이를 택한 어머니. 어머니는 '다른 사람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나 가족에게 우선순위를 준다'는 원칙을 갖고 계셨습니다.

카터렛 부인과 소년 김형식의 편지 왕래는 1959년부터 매달 한 번씩 10년간 이어졌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카터렛 부인은 소년의 어머니가 되었고, 소년의 편지는 'My dear mother(나의 친애하는 어머니)'로 시작했습니다. 소년은 영국에서 편지를 받을 때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망과 안전감을 느꼈고 이 지구상의 누군가가 자기 생각을 해준다는 사실에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카터렛 부부는 그들의 가정에 이 소년이 들어오도록 초대했던 것입니다.

2011년 7월, 어머니가 영국에서 89세로 돌아가셨는데, 김형식 교수가 어머니 곁을 지켰습니다. 어머니는 유언장에 '나의 유언대로 호주에 사는 김형식도 모든 것을 함께 상속받는다.'고 적혀있었습니다. 김형식 교수와 네 자녀에게

같이 상속한다는 유언이었지요. 그에게는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이미 재산의 상당한 부분을 기부한 뒤라 상속재산 때문에 감격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카터렛 부부가 자신을 진정한 아들로 평생 인정했다는 것을 재확인했기 때문이었지요!

### 학자 김형식

어렸을 때 소년은 '시선의 폭력'을 싫어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길에서 쳐다보면 쫓아가서 발길질하며 쫓아버렸죠. 그런데 비록 나무통을 깎아 만들고 갈고리를 단 의수였지만, 의수를 단 후에는 왼팔을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소년은 대학 시절에 '편견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대학원에서 장애인고용법을 연구했고, 마침내 2010년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위원회 한국대표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김형식 교수는 '나는 이렇게 토레이 박사라는 한 선교사에게 영감을 받았다(I was touched by a missionary).'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는 개도국에 나가는 젊은이들에게 '이제부터 여러분이 하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고 손을 대는 사람의 인생은 변할 것입니다'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 김혜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김형식 교수에게 영감을 받았다(I was touched by Dr. Hyung-Shik Kim).'

무엇이 진정한 국제협력인가? 무엇이 진정한 사회복지인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김형식 교수는 끝없이 고민하고 고민합니다.  
우리가 값없이 받았으니 우리도 가난한 나라에 이바지해야 하지 않겠는가!  
개발도상국에 대한 일방적이고 수직적인 시혜가 아닌 명실상부한 국제협력의 파트너로서....  
'이러한 협력활동은 동시에 우리 자신의 성장과 성숙에 기여한다.'고 그는 강조합니다. M

SK핸드볼 경기장  
2017.08.26 SAT

본행사는 빛이 없이 살아가는  
해외 빈곤 국가 어린이들을 위한  
나눔 축제입니다.

# 에너지 나눔 대축제

주최 |  밀알복지재단  
주관 |  SHOREDITCH  JOEAD 미디어  
미디어 후원 | 이투데이

ZICO :  
DEAN :  
HEIZE :  
BABYLON :  
SAAY :

# 함께 만드는 따뜻한 세상 ~



## 국내소모임 '어울림으로 하나 되는 세상'

4월 13일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후원회원들과 함께 장애인의 일상을 체험해보는 '어울림으로 하나 되는 세상'을 진행하였습니다.

혜화역 이음센터에서 진행된 소모임에서는 하반기 마비로 지체장애 1급 판정을 받은 최국화 강사의 장애인식개선 강의가 있었습니다. 강의가 끝난 후 휠체어 사용법을 배운 회원들은 혜화역 일대를 휠체어에 탄 채 직접 체험해보기도 했습니다.

"저는 휠체어를 밀어주었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쳐다보더라고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장애인들이 바깥으로 나오는 것조차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다 생각되더라고요." - 김지후 회원

장애에 관한 관심을 넘어 그들과 공감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 주신 모든 밀알 회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 회원모니터링단 '어울림'

4월 13일 ~ 5월 25일

밀알복지재단 회원모니터링단 '어울림' 4기 활동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활동에서는 국내 및 해외사업, 재정 및 후원금 관리, 온라인 모금에 관해 해당 실무자들과 함께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지고, 회원 간 정보를 공유하며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어울림'을 통해 재단운영 등에 대해 궁금했던 부분을 해소하고, 재단에 대한 신뢰도가 더욱 높아졌다는 의견 등을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후원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좋은 곳에 후원하고 있다는 자부심이 생기고 더 후원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 윤현수 회원

"밀알복지재단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진정성'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회원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게 느껴졌고, 후원을 받는 아동들을 사랑하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려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 이재은 회원

밀알복지재단은 언제나 후원회원들에게 당당할 수 있도록 목적에 맞게 후원금을 사용하고 있으며,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밀알의 회원들과 함께 순수하고 투명하게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밀알복지재단이 되겠습니다.



## 홍보대사 권오중

4월 18일 날개콘서트 MC

서울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날개, 꽃길만 걷자> 콘서트가 열렸습니다. 발달장애인 청소년들로 이루어진 밀알첼로앙상블 날개가 편당을 통하여 여러분의 응원과 후원을 받고, 또 새로운 후원기업을 찾게 된 것에 대한 감사 콘서트에서 권오중 홍보대사가 사회를 맡아 의미 있고 즐거운 토크 콘서트를 진행해 주었습니다.



### 홍보대사 표인봉

4월 25일 안산밀알콘서트 MC

표인봉 홍보대사의 진행으로 시작된 안산밀알콘서트는 온누리사랑챔버의 아름다운 화음과, 안산시립합창단의 멋진 합창, 박모세군의 가슴을 울리는 따뜻한 연주, 퍼니밴드의 신나는 공연이 이어지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즐거운 화합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 배우 김규리

4월 22일 에티오피아 아브라함과의 재회, 희망TV SBS 촬영

2년 전, 희망TV SBS를 통해 밀알복지재단과 함께 아프리카 에티오피아를 찾았던 배우 김규리씨가 에티오피아에서 만나 후원한 아동 아브라함과 한국에서 재회하였습니다. 이날 김규리씨와 아브라함은 서로의 안부를 확인하고 아쿠아리움과 남산타워 등을 돌아보며, 즐거운 추억을 쌓았습니다.



### 배우 류준열

5월, 밀알복지재단에 장애아동 수술비 지원

배우 류준열씨가 밀알복지재단의 새로운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류준열씨는 밀알의 후원자로서 장애아동을 위한 지속적인 후원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히며, 자신의 후원이 더 많은 사람들의 나눔 실천으로 이어지길 소망한다고 전했습니다.



### 홍보대사 에이프릴

6월, 밀알콘서트 홍보영상 촬영

홍보대사 에이프릴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음악으로 하나 되는 밀알콘서트를 홍보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밀알복지재단의 SNS를 통해 공개된 에이프릴의 활기찬 응원영상은, 많은 사람들에게 밀알콘서트의 취지를 알리고, 참여를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법인사무처 주요 소식



### 밀알디아코니아연구소 개소

밀알디아코니아연구소(소장 김진)가 5월 30일에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개소식을 가졌다. 밀알디아코니아연구소는 '디아코니아(섬김)이라는 뜻'의 이론 연구 및 교육을 통해 디아코니아 정신을 확산시키고자 설립됐다. 앞으로 밀알디아코니아연구소는 교육커리큘럼 개발 및 리더십 세미나, 청년을 위한 디아콘 캠프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 14회 밀알콘서트 개최

14회 밀알콘서트가 6월 23일, 세종대학교 대양홀에서 3천여 명의 관객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2004년부터 시작된 밀알콘서트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국내 최대의 통합음악회로, 외부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는 공연관람의 기회를 제공하고, 비장애인에게는 장애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 장애를 이해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 더드림스토어 개점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근로사업장 더드림스토어가 7월 11일에 오픈했다. 성남시 분당구 이매역 6번 출구에 위치한 더드림스토어는 개인이나 기업에서 기증받은 중고물품이나 재고품을 소비자들에게 저렴하게 판매하고, 수익금은 장애인의 급여로 사용한다. 또한 자원을 재활용해 환경까지 보호하는 '착한 소비'를 지향하는 가게이다.



# 국내외 지부 및 산하시설 주요 소식



### 말라위 지부 나눔과 꿈 에너지드림타운 사업담당자 연수

6월 26일부터 5일간 말라위 '나눔과 꿈 에너지 드림타운' 사업담당자들의 국내 초청연수를 시행하였다. 재단의 직업재활사업과 사회경제적사업을 추진기관 및 현지 직업재활 아이템 비교분석을 위한 외부기관을 방문해 태양광발전 설비교육과 재단의 직업재활 시스템을 공유하였다.



### 케냐 지부 중증장애아동 역량강화사업 타당성 조사

6월 19일부터 5일간 키수무(Kisumu)지역 중증장애아동 가정의 역량강화사업인 협동농장 운영을 위해 농장 개발 예정지의 접근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대상자 부모교육, 장애인식교육, 영양파우더 배분 등 장애인의 생존권 및 인식개선 활동을 병행하였다.



### 레바논 지부 아동보호센터 아동대상 현장학습

5월 23일과 24일 양일간 밀알아동보호센터 아동 280명을 대상으로 현장학습을 시행하였다. 이번 현장학습을 통해 체육·미술 활동과 레크리에이션 활동 및 동물원, 농장 체험을 진행해 아동들의 정서와 심리 안정을 도모하였다.



### 쌍봉종합사회복지관 '꿈을 품다 희망박스' 행사 개최

LG화학은 지난 4월 14일에 지역 내 저소득 가정 청소년들을 위해 3,000만원 상당의 여성위생용품을 지원하는 '꿈을 품다 희망박스' 행사를 여수시와 쌍봉종합사회복지관과 함께 진행하였다. 개인이 6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지원품들은 취약계층 청소년 500명에게 전달하였다.



### 쌍봉장애인주간보호센터 '장애인의 날' 나눔 행사

4월 20일, 금호석유화학과 함께 여수 이순신공원에서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금호석유화학은 재활교구와 특별 기념품을 함께 전달하여 사회복지 나눔의 가치를 직접 실천했다.



### 안산시장애인복지관 2017 희망나눔 안산밀알콘서트

재단의 안산 내 산하시설이 공동으로 주관하는 콘서트가 4월 25일 안산동산교회에서 열렸다. 표인봉 홍보대사가 사회를 맡은 이번 콘서트는 안산시립합창단, 온누리 사랑 챔버(장애인 오케스트라), 박모세(KBS2 불후의 명곡 출연), 김해영(아프리카권역 본부장), 퍼니밴드 등이 출연하였다.



### 미얀마 지부 카친 주 국내실향난민 지원사업 착수

내전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카친 주(Kachin state) 난민 800여 명을 대상으로 식량 및 비식량 물자를 지원하고, 산간오지 지역 아동들의 교육을 위한 강사 파견과 기자재 지원 등을 통해 난민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태국 지부 '한마음스토어' 운영 시작

지난 5월부터 핏사눌록(Phitsanulok) 사업장의 신규 사업으로 '한마음스토어' 운영을 시작하였다. 이번 사업을 통해 장애인들의 직업재활훈련을 강화해 역량을 개발하고, 수익창출을 통해 자립을 돕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 대전·충청 지부 아프리카 밤길을 밝히는 희망의 빛 보내기

5월 5일, 대전 중구청이 주관한 제95회 어린이날 행사에서 에너지나눔교육을 진행하였다. 어린이와 가족, 지역주민 등 5,000여 명이 태양광발전 조립을 통하여 일상생활에서 에너지의 소중함과 절약의 중요성에 대해 배우고 나누는 교육의 장이 마련되었다.



### 대청종합사회복지관 저소득주민 무료건강검진

대청종합사회복지관과 14개 복지기관, 강남복지재단, 서울대학교병원 강남센터 오아시스 봉사단이 함께 6월 17일 수서중학교에서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혈액, 안과, 신경과, 통증클리닉, 치과, 부인과, X-ray, 내과 등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였다.



### 굿윌스토어 밀알송파점 전 직원 한마음 캠프

6월 6일부터 3일 간 전 직원 한마음 캠프를 위해 전주 한옥마을을 다녀왔다. 한옥마을 외 채석강, 원숭이 학교 등을 돌아보며 함께 추억도 쌓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서울글로벌센터 생활지원팀 외국인 베틀시장, 글로벌 콘서트 개최

지난 5월 28일과 6월 18일, 광화문광장과 동대문DDP에서 외국인들의 수공예품과 전통공예품 등을 판매하고, 수익금 일부를 소외계층을 위해 기부하는 외국인 베틀시장이 열렸다. 그 밖에 외국인들로 구성된 전통음악 공연단들이 펼치는 글로벌 콘서트가 함께 진행되어 풍성한 축제의 장을 마련하였다.



### 밀알학교 20주년 기념행사

5월 12일, 밀알학교 그레이스홀에서 개교 20주년 기념식을 진행하였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1997년 개교 과정과 그동안의 성장과정을 되새기며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 학생, 학부모, 교사는 물론 특수교육 관계자 및 지역사회 인사들이 참여해 함께 기뻐하며 축하하는 자리가 되었다.



### 굿윌스토어 밀알전주점 봄맞이 야유회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굿윌스토어 밀알전주점 근로인들과 함께 곡성기차마을에서 봄기운을 만끽하는 야유회를 가졌다. 평소 타보지 못하는 기차를 타고 창밖으로 보이는 봄 풍경을 구경하며, 꽃과 봄내음 가득한 기차마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면일어린이집 어린이날을 축하해요

면일어린이집 아이들이 지난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이하여 나를 주인공으로 만드는 '나를 뽐내요!'와 '어린이 사랑 캠페인' 행사를 진행하였다. 내가 좋아하는 것, 장래희망 등으로 자신을 꾸며 뽐내보고, 밖으로 나가 행진을 하며 '어린이를 사랑해 주세요'라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 해미물주간보호센터 늘푸른자연학교 숲 체험 활동

5월 18일, 늘푸른자연학교 활동으로 길동 생태공원에서 진행되는 숲 체험에 참여하였다. 푸르른 나무들과 다양한 꽃을 직접 보고 만지고 느끼며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 중림어린이집 배다골 테마파크 현장학습

중림어린이집 모든 친구들이 6월 30일에 배다골 테마파크로 현장학습을 다녀왔다. 더운 날씨였지만 꼬마기차도 타고 귀여운 동물 친구들도 만나며 행복한 하루를 보냈다.



### 성남시장장애인복합사업장 친절교육 실시

더드림스토어 오픈을 앞두고 장애인직원을 비롯한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하였다. 고객에 대한 친절한 응대와 직원 상호간 예절에 관한 이론교육과 실습을 통해 개점을 준비하였다.



# 국내외 지부 및 산하시설 주요 소식



### 밀알그린보호작업장 말 생태 탐방 프로그램

5월 23일, 과천 렛츠런파크로 말 생태 탐방을 다녀왔다. 다양한 말들이 살고 있는 포니하우스에 들어가 직접 먹이를 주기도 하고, 말 병원, 말굽 클리닉 등 평소 쉽게 볼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다.



### 청마을어린이집 브레멘 음악대 어린이날 공연

강남구 시니어플라자에서 주최하는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의 일환인 '브레멘 음악대'의 어린이날 공연을 관람하였다. 청마을 친구들은 할머니들과 함께하며 모두 즐겁게 공연을 관람하였다.



### 서초구립중앙노인종합복지관 서초구청장과 함께 하는 '서초공감 Talk Talk'

6월 8일, 복지관 3층 대강당에서 '서초공감 Talk Talk'이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방송인 김승현의 진행으로 조은희 서초구청장과 어르신들이 제2의 인생에 대해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다.



### 밀알베이커리 SPC그룹 후원

6월 29일, SPC그룹으로부터 우리밀 100포를 후원받았다. SPC그룹은 서울시 보호작업장 중 베이커리 작업장들과 유대 관계를 맺고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 우리플러스작업장 사회적응훈련

이용자들의 사회적응 능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공공식당에서 식사하기를 진행하였으며, 식사 후에는 영화를 관람하였다. 지역 내 식당을 이용하고, 영화를 관람하면서 이용자들은 사회적응을 훈련하며 즐겁게 외부활동을 하였다.



### 강남단기센터 장애인 건강지원사업 진행

5월12일, 강남구 보건소와 함께 장애인 건강지원을 위한 양재천 걷기를 진행하였다. 이번 걷기교육은 강남구보건소 관계자, 전문강사, 역삼주간보호센터 등 많은 이들과 함께 하였으며, 교육을 통해 올바른 걷기, 즐거운 걷기 등을 배우는 시간이었다.



### 부암어린이집 행복한 봄소풍

전체원아가 5월 25일에 파주 퍼스트가든으로 봄소풍을 다녀왔다. 친구들과 도시락도 먹고 잔디밭에서 신나게 뛰어노는 등 다양한 체험과 활동으로 소중한 추억을 한가득 만들었다.



### 도봉시니어클럽 버선발사업단 시작

2017년 노인일자리사업 중 하나인 '버선발사업단'을 시작하였다. 버선발사업단은 도봉구청의 배려로 방학 2동 경로당 2층 공간을 2017년 5월 11일부터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다.



### 강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결혼이민자 취업교육

취업에 관심 있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반려동물의 상제적자 양성과정 8회기를 진행하였다. 미싱 작동법과 함께 애견 의상 등을 만들어보며 결혼이민자의 취업교육을 시행하였다. 9월 하반기에 심화과정반을 개설해 취업을 도울 예정이다.



### 방학동밀알데이케어센터 상반기 보호자 간담회

6월 16일, 센터 내 프로그램실에서 이용어르신들의 보호자들과 함께 상반기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보호자 참여수업으로 음악요법도 진행하였고, 심폐소생술 교육도 실시하였다.



### 안산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연합체육대회 실시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의 기념하여 안산시에 있는 주간보호시설들이 연합하여 체육대회를 진행하였다. 레크리에이션과 운동회를 통해 주간보호시설 기관 간의 유대감을 형성하는 시간이었다.



### 도봉재가노인지원센터 무료식사 지원

5월 18일,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 어르신들에게 해마루식당에서 무료식사를 제공하였다. 해마루식당의 후원으로 맛있는 음식을 어르신들에게 대접하며 근황과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 강남구직업재활센터 국민연금증카드기금사업 선정

국민연금 역삼지사와 함께하는 국민연금증카드기금 사업에 선정되어 우리플러스작업장과 밀알베이커리에서 행사를 진행하였다. 첫회기로 6월 15일 우리플러스작업장에서 비누꽃바구니 만들기를 실시하며 직업유지기능을 강화해 직무를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 밀알보호작업장 근로인 모임

4월 28일, 장애인 근로인들을 격려하고 작업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장애인 근로인들은 맛있는 음식도 함께 먹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한우리주간보호시설 보호자와 함께하는 신바람 산바람 숲 체험

6월 14일, 경기도 광주 성분도복지관에서 '보호자와 함께하는 신바람 산바람 숲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하였다. 한우리 가족 간 친목 도모와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을 느끼고 휴식하는 시간도 가졌다.



### 굿월스토어 밀알구리점 봄 야유회

5월 23일, 밀알구리점 직원들은 롯데월드타워로 봄 야유회를 다녀왔다. 서울의 전망을 보고 놀이기구를 타며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도 풀고, 장애근로인들의 공동체 의식 및 사회성을 증진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 안산밀알센터 '자연을 품은 힐링캠프'

5월 17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이용인과 지원인력 30명이 함께 캠프를 다녀왔다. 안면도의 휴양림과 충남 태안반도 일대의 자연을 관광하고 체험하며 휴식하는 시간을 가졌다.



### 도봉노인종합복지관 어버이날 기념 '청춘여행'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5월 12일, 16일 2회에 걸쳐 나들이를 진행하였다. 마곡사, 송산리 고분군, 공산성 등을 관람하며 충남 공주의 문화를 즐기는 시간이었다.

# 여러분의 후원금,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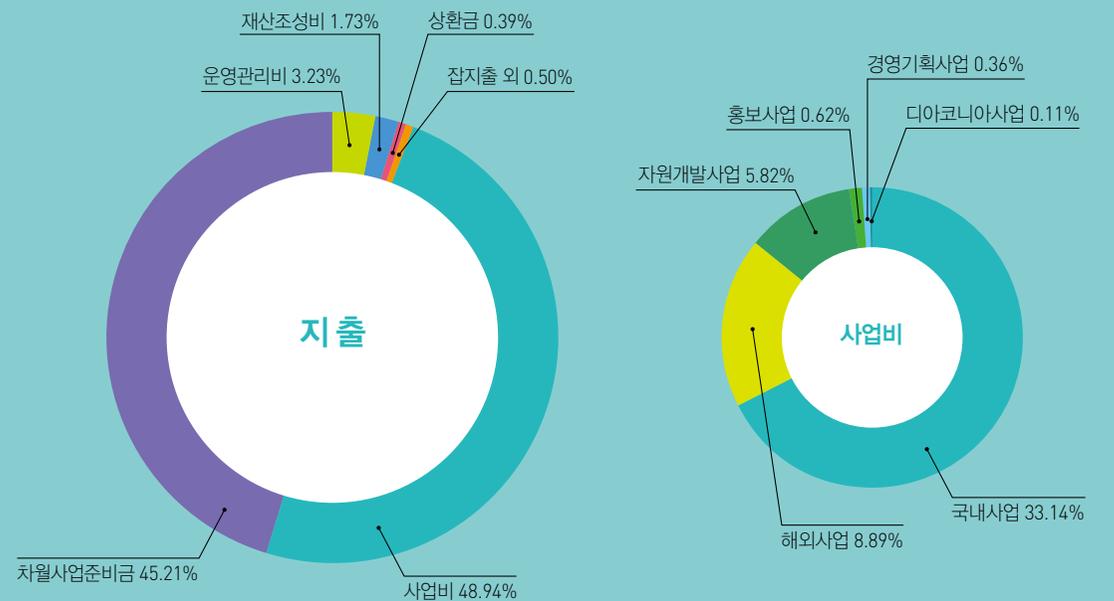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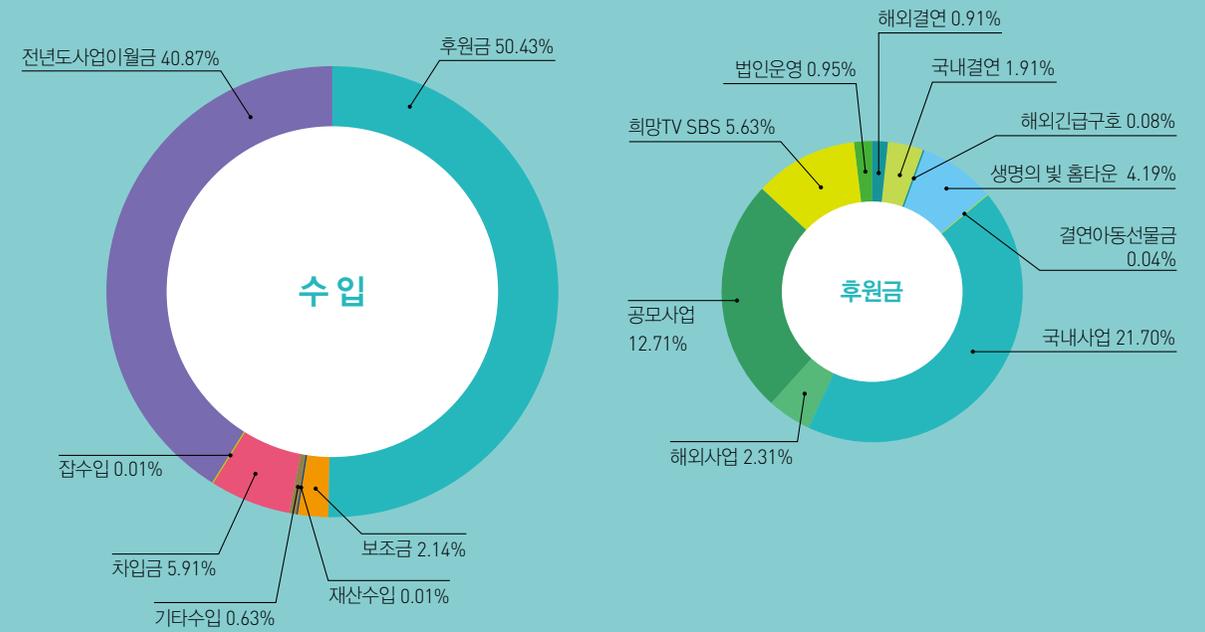
**[수입]** (단위: 천원)

구분	내용	누계
보조금	위탁시설운영지원보조금, 기타보조금	289,812
후원금	국내(장애아동, 독거노인, 저소득가정)후원, 해외(보건의료, 지역개발, 아동교육)후원, 긴급구호후원, 공모사업후원, 법인운영후원, 생명의 빛 홀타운 후원수입 등	6,824,205
전입금	수익사업, 시설 등	0
재산수입	정기예금이자 외	800
기타수입	고용장려금 외	84,596
접수입 외	예금이자 등 접수입	1,536
차입금	금융기관 차입금	800,000
전년도사업이월금	사업이월금	5,530,919
<b>합계</b>		<b>13,531,868</b>

**[지출]** (단위: 천원)

구분	내용	누계
운영관리비	인건비 등 재단운영관리비	436,966
국내사업	국내아동결연 및 보육, 장애인의료 및 교육지원, 저소득가정지원, 다문화가족지원, 노인복지사업, 지역사회복지사업, 인식개선사업, 생명의 빛 홀타운	4,483,922
해외사업	해외아동결연, 해외아동교육, 긴급구호지원, 보건의료사업, 지역개발사업 등 21개국 지원	1,202,842
자원개발사업	미디어, 온라인, CSR협력, 회원서비스사업	788,035
홍보사업	언론, 출판, 홍보물 제작, 홈페이지관리사업	84,528
경영기획사업	교육연구, 조직강화, 기획사업, 전산개발	48,339
디아코니아사업	리더쉽세미나, 디아코니아트립, 출판, 모금, 홍보	14,978
재산조성비	기본재산취득, 임차보증금, 시설장비유지	233,622
상환금	부채 상환금*	52,377
잡지출	잡지출	67,833
차월사업준비금	사업준비금	6,118,426
<b>합계</b>		<b>13,531,868</b>

\* 상환금은 법인운영으로 지정된 후원금으로만 사용됩니다.  
\* 결산조정에 따라 공시내용이 수정될 수 있습니다.



## Financial Highl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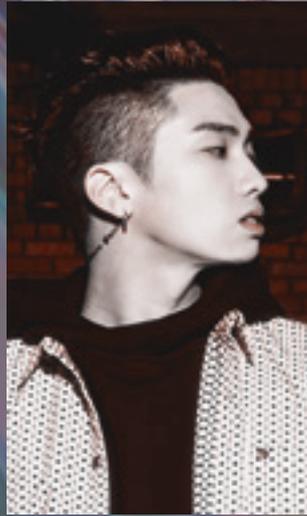
ENERGY SHARING CONCERT

SK핸드볼 경기장  
2017.08.26 SAT. 18:00

# 에너지 나눔 콘서트

ticket INTERPARK  
info 티켓문의 070.8146.8140  
공연문의 070.7462.9055

ZICO DEAN BABYLON HEIZE SAAY



| 주최 | 밀알복지재단 | 주관 | SHOREDITCH | 애드미디어 | 미디어후원 | 인터파크 | 후원 | 인노베이션 | 상봉종합사회복지관 | LET HER MAKE-OVER | 피자알볼로

**[국내사업장]**

**[법인 및 지부]**

- 법인 사무처 02-3411-4664
- 밀알다이코니아연구소 02-3411-4664
- 경기 본부 031-235-4667
- 경남 지부 1600-0966
- 대전·충청 지부 042-223-4669
- 부산 지부 051-853-4665
- 인천 지부 032-506-4668
- 전남 지부 1600-0966
- 전북 지부 1600-0966

**[장애인복지사업]**

- 강남구직업재활센터 02-2184-8700
- 강남 단기보호센터 02-2184-8799
- 굿윌스토어 밀알구리점 031-524-9891
- 굿윌스토어 밀알도봉점 02-6910-9191
- 굿윌스토어 밀알송파점 02-6913-9100
- 굿윌스토어 밀알전주점 063-282-9192
- 밀알그룹출 나눔의 집 02-3401-1084
- 밀알그룹출 동행의 집 055-753-1456
- 밀알그룹출 섬김의 집 02-449-3478
- 밀알그린보호작업장 02-3411-8300
- 밀알보호작업장 02-2184-8740
- 밀알베이커리 02-2184-8702
- 밀알장애인활동지원센터 02-3411-7942

- 밀알학교 02-3412-1133
- 샘물밀알의집 031-339-0780
- 상대장애인복지관 031-777-9041
- 안산밀알보호작업장 031-402-2484
- 안산밀알센터 031-401-0902
- 아름드리그룹출 031-414-3171
- 안산시장애인복지관 031-403-0078
- 안산시장애인주간보호시설 031-418-9863
- 우리플러스작업장 02-2184-8750
- 옥수그룹출 031-705-3398
- 쌍봉장애인주간보호센터 061-685-1153
- 한우리주간보호시설 02-2184-8761
- 해마울주간보호센터 02-3412-7747

**[노인복지사업]**

- 도봉노인종합복지관 02-993-9900
- 도봉데이케어센터 02-990-6670
- 도봉시니어클럽 02-3492-3009
- 도봉재가노인지원센터 02-3494-6060
- 목련데이케어센터 02-3412-2226
- 방학동밀알데이케어센터 02-955-6090
- 서초구림중앙노인종합복지관 02-3474-6080
- 창동밀알데이케어센터 02-995-7890

**[아동보육사업]**

- 면얼어린이집 02-495-4604
- 목련어린이집 02-3412-1999

- 부암어린이집 02-396-6226
- 여천제일어린이집 061-681-7170
- 중림어린이집 02-364-7534
- 청마어린이집 02-459-6335

**[지역사회복지사업]**

- 강남구건강강화지원센터 02-3412-2222
- 강남구다문화가족지원센터 02-3414-3346
- 대청종합사회복지관 02-459-6332
- 밀알아트센터 02-3411-4661
- 쌍봉종합사회복지관 061-681-7179
- 쌍봉지역아동센터 061-681-7279
- 서울글로벌센터생활지원팀 02-2075-4180

**[해외사업국]**

- 기니비사우 +245-574-6516
- 남아프리카공화국 +27-79-527-9117
- 네팔 +977-1-431-5485
- 라이베리아 +231-886-668097
- 노논 +961-7049-1615
- 마다가스카르 +261-2022-44496
- 말라위 +265-992-129-931
- 미얀마 +959-25-091-2234
- 방글라데시 +880-171-510-7842
- 베트남 +84-903-391-568
- 시에라리온 +232-76-606074

- 우간다 +256-776-771-324
- 우크라이나 +38-0974-338-961
- 에티오피아 +251-911-760-422
- 이스라엘 +972-52-547-1422
- 캄보디아 +855-12-783-193
- 코트디부아르 +225-0705-8783
- 케냐 +254-732-625-987
- 탄자니아 +255-754-344-495
- 태국 +66-86-191-6122
- 필리핀 +63-922-739-7017

**후원문의**  
**1899-4774**

**회원전용**  
**1600-0966**

**후원전용계좌**

- 하나은행  
**810-213140-01605**
-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

밀알복지재단